

[퍼드코드 : 87734]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 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 (주) (02-6910-11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2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1	A-e	C1	C-e	S	C-w	C-P	C-P2
가입자적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제한없음	온라인 전용	온라인 판매시스템 가입 투자자	종합자산관리 (Wrap)계좌/ 신탁업자	연금저축 계좌 전용	퇴직연금 전용
		제한없음	온라인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70	0.35	1.50	0.78	0.35	0	0.75	0.68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 0.70, 신탁업자 :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							
	기타비용	0.0028	0	0.001	0.0022	0	0.001	0.001	0.001
	총보수·비용	1.4528	1.10	2.25	1.5322	1.10	0.751	1.501	1.431
※ 주석사항		※ 생략된 종류[Class C2~C5, C-i, C-f]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Class C2 ~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며, 적용기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회계연도 : 2015.09.10 ~ 2016.09.09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							

	<p>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 그밖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 Class C-i, C-w, C-P 및 C-P2는 미설정펀드이므로 다른 Class 펀드의 보수를 준용하여 작성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15시 30분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기준 가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95%+Call*5%

주1)비교지수 선정사유 : KOSPI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격에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시가총액지수로서 국내 주식시장의 종합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KOSPI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식편입비율 및 유동자금비율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전략>

- 핵심전략인 저평가 가치주 투자를 통하여 이론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통하여 가치주 투자가 갖는 단기수익 부진 가능성의 보완과 추가 수익성을 함께 고려

전략구분	세부전략	
Core 핵심전략 - 가치투자	저평가 가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 Contrarian관점(역발상 관점)에서 접근 ▪ 저평가 원인 분석 및 해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리서치
	안정 성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가 누적되어 본질가치가 우상향 하는 기업 ▪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원천 평가 ▪ 트래픽, 무형자산 등 미래 현금창출 가능한 모든 자산 평가
위성전략 - 적극적인 시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상황에 따른 적극적 종목발굴과 투자로 초과 수익 창출 ▪ 종목 발굴 시 BM 내 시장 비중, 섹터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만 접근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장상황 판단에 따라 주식 편입비율을 결정하며, 주로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에 의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2016.12.1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박의현	1972	책임운용 (주식운용본부장)	17개	1,825억
김정훈	1985	부책임운용(주식)	50개	2,796억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박의현운용역 - 5개, 103억 / 김정훈운용역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11.16 ~16.11.15	14.11.16 ~15.11.15	13.11.16 ~14.11.15	12.11.16 ~13.11.15	11.11.16 ~12.11.15
Class A1	0.61	-4.64	-9.51	9.15	-8.00
비교지수	-0.17	1.50	-2.73	7.02	-0.55

주1) 비교지수 : KOSPI*95% + Call금리*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전체 종류 수익증권 중 대표 종류(종류 A1) 수익증권만 작성되었고 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11.75%**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다소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① 시장위험 - 빈번한 자산 배분 지양 및 파생상품 활용으로 불필요한 거래 비용 축소
- ② 변동성위험 -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에 노출될 경우 포트폴리오 집중 점검
- 변동성 원인 분석 후 대응 방안 실행
- ③ 개별기업위험 - 철저한 기업분석과 투자종목의 주기적 기업 탐방
- ④ 유동성 위험 - 투자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고려
- ⑤ 신용위험 - 투자종목 선정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낮은 종목 투자 배제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가입자

구분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Class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③ ①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